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1 일 선교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선교의 첫 걸음-

4월 3일 주일 본교회 본당에서 김정문 선교사님을 모시고 1일 선교세미나를 가졌다. 전 파푸아뉴기니 선교사였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으셨던 김정문 선교사님의 강의는 선교의 본질과 지금까지의 세계선교의 역사적 큰 흐름을 이해하고 선교의 현주소를 재점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진심은 너무도 에너지가 넘쳐서 선교사님의 연세를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그래서 더욱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선교에 집중하게 하는 첫걸음을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난 2년여동안 코비드 19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도전에 처했던 교회의 사역은 역시 선교사역이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로 인해 사역지를 떠나야만 했고, 선교지에서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있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혹은 코비드에 감염되었고, 혹은 한국으로 부득불 돌아가야만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대한 헌신과 섬김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에서의 선교는 이미 위드코비드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어 가는 지금 교회들은 뉴노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가기에 분주하다. 세계선교를 향한 교회의 역할도 그 모델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선교사님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선교패턴의 변화를 주목하고 연구한 수많은 선교기관들이 이 일을 위해 연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주일 전 한인세계선교사회(KWMMF,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선교전략”이라는 주제로 ‘KWMMF LA Summit Conference 2022’를 개최하였다. LA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56개국에서 총 164명의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단체들의 리더들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선교상황과 당면한 문제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방법과 선교전략과 대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그 중에 특히 눈이 가는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선교’였다. 강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요약해보았다.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슈밥이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팬데믹으로 인해 그 예상이 훨씬 빠르게 일상에 구현되 버린 것이다. 지금 전세계 인구 79억 중 도시화가 진행된 수는 57.0%, 모바일 폰 사용자는 67.1%, 인터넷 사용자는 62.5%이고,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58.4%로 도시화된 인구수를 넘어섰다. 연간 도시화 증가율은 1.0%인데 반해,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수는 연간 10.1% 즉 424백만명이 증가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2-3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팬데믹이 가져온 뉴노멀, 온택트 시대는 새로운 복음전도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 예가 JESUS.NET 인터넷선교 사이트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이트로서, 전세계 대상으로 44 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지역교회와 연결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복음선교 모델은 터키, 레바논, 인도 등의 나라들에서도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 차산업혁명에서 2 차산업혁명은 150 년만에 일어났고, 3 차 산업에서 4 차 산업혁명은 불과 25 년 만에 일어났다. 산업혁명의 주기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많은 인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변화는 특히 다음세대들에게는 훨씬 익숙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의 선교 역시 4 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각 언어별 인터넷 선교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교육, 랜선아웃리치, 메타아웃리치, 메타버스대학설립, 선교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지원 등을 제안해 본다.

우리 코 앞에 다가온 앤데믹... 팬데믹으로 지친 선교사님들은 이제 코비드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선교해가야 한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20 여년의 시간을 헌신하신 분들이지만, 이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변수는 그간의 경험치에도 또다른 낯섦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김정문 선교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1 일 선교 세미나 메시지가 선교의 기초를 다지며 우리의 현재를 진단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세계선교를 배우고 그에 맞는 우리 교회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 교회의 다급한 문제도 많은데, 내 삶도 고달픈데, 선교의 내일까지 준비 하라니 분에 넘쳐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 영혼을 위해 나가는 것보다 더 다급한 문제는 없다. 너무 늦지 않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차세대 선교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 갈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한다.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공통기도>

-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 인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 코비드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어려워진 현지 교인들을 위해

감비아	한병희	안신년 이후 개척할 학교사역과 입양공동체사역.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어린이 복음사역.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정치적 불안정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선교 30 주년 기념 행사 준비
스리랑카	정은범	국가정 경제 위기극복과 극빈 가정들, 한국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아리조나	모니카 리	교인들의 가정들이 믿음안에 서고, 마약과 범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필리핀	김대영	필리핀 재입국 과정 및 재개하는 필리핀 선교 사역, 사모님의 건강
T 국	장과장&주열매	리더 훈련 수료한 H 가정의 사역 시작. 새로운 영혼들의 믿음과 구원.
CRU	한정혜&데미안 브룩스	리더십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코스타리카	금상호	바른 복음의 재교육, 인디오 지역의 구제와 말씀 사역

*** 선교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매주 금요일 9 시에 선교지 한 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부에 알려주시면, 매주 기도제목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